

●인터뷰

권태형 미국 미주 안동권씨 종친회장을 만나다

한국말 할 줄 아는 30~40대 후속세대 양성 시급

권혁홍 회장과 권태정 수석부회장은 8월 19일 대양그룹 회장실에서 권태형 미주종친회장과 대담을 했다. 8월 27에는 권태정 수석 부회장이 대종회에서 권태형 미국 미주안동권씨 종친회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권혁홍 회장: 한국에 오셔서 방문해 주시니 반갑습니다. 미주종친회장을 맡아주셨다니 고맙습니다. 대종회 부회장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권태형 미주종친회장(이하 미주회장): 네. 안동권씨 후손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 관심 갖고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미주종친회 발전을 위해 대종회와 소통도 자주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홍 회장: 이제 대종회 부회장이니 자부심 갖고 명함에 새겨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안동권씨종보는 보셨나요.

미주회장: 뉴욕에서 종친회 할 때 나눠줘서 봤습니다.

권혁홍 회장: 뉴욕의 미주종친회 중심으로 종친들이 종보를 구독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뿌리 교육이 중요합니다. 권행완 편집국장하고 자주 소통하고 서로 연결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등으로 장구를 만들어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한국과 미국과 중국 일본까지 소통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카톡으로 카톡방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권태정 수석부회장(이하 수석부회장): 상당히 젊으신데 미국에서 태어났네요.

권태형 미주종친회장(이하 미주회장): 고향은 원래 인천 만수동입니다. 85년생이고 올해 나이 41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인천에 계십니다.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되던 해 2002년 1월 17일 날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이모가 계셔서 부모님께 미국 보내달라고 때를 써서 3개월짜리 관광비자 받고 갔습니다.

수석부회장: 이모가 미국 어디 계셨나요. 그리고 시민권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고등학교 대학교를 미국에서 다닐 수 있었나요.

미주회장: 이모는 뉴욕에 계셨습니다. 무작정 이모한테 갔는데 처음에 영어도 할 줄 몰라서 언어 문제로 힘들었습니다. 이모가 영어를 빨리 배우라고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 흑인학교에 보냈습니다. 흑인들이 중국놈이라고 무시하고 따돌림이 심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제가 중국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사람인지 구분을 잘 못하고 그냥 중국놈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필리핀 사람인지 라오스 사람인지 베트남 사람인지를 잘 모르듯이 말이죠.

수석부회장: 저도 뉴욕에 3년 살았습니다. 뉴욕 중앙일보 사장을 지냈습니다. 학교를 힘들게 다니셨네요.

미주회장: 따돌림이 하도 심해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고 생각해서 2달 만에 베스킨라벤스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 벌면서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미국 수능(SAT)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맨하탄에 있는 뉴욕시립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수석부회장: 대학 졸업하고 바로 해군에 입대했나요.

미주회장: 미군에서는 얼마나 근무했나요.

미주회장: 해군에서 6년 근무하고 2020년 35살에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잠수함을 3년 탔고, 항공모함을 3년 탔습니다. 잠수함 승선 인원은 약 4~500명 되고, 항공모함은 약 5000여명 됩니다. 떠다니는 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핵융합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잠수함에도 항공모함에도 배 안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수석부회장: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종친회 모임이 있다고 해서 2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젊은 분이 미주종친회장이 되었나요. 놀랍습니다.

미주회장: 미 해군 들어가기 전에 H-MART 회계팀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H-MART 주인이 권일연 회장님인데 저한테 무슨 파냐 등 여러 가지들 물으셨습니다. 권일연 회장님을 통해서 종친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즘도 가끔 뵈고 안부도 묻곤 합니다. H-MART가 현재 미국 전역에 100여 개나 됩니다. 권일연 회장님께서 종친회를 많이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권일연 회장님 만나면서 종친회 나가봐야겠다 생각하다 제대하고 나서 종친회 모임에 나가고 하다 보니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니가 주변에서 종친회 회장을 권유했습니다. 한번 모이면 6~70명 정도 모이는데, 대부분 90% 이상이 60대 이상, 70대, 80대이고 90 넘으신 분도 가끔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막내가 회장이 된 셈입니다.

수석부회장: 뜻밖에 여기에서 권일연 회장님 소식을 듣게 되네요. 권일연 회장님은 제가 잘 압니다. 미국에 있을 때 종친회 나가서 또 개인적으로도 몇 번 뵈는 적이 있습니다. 인연이 이렇게 될 줄 미처 몰랐습니다. 꼭 안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주종친회에 젊은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미주회장: 권일연 회장님께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건물주도 많습니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

녀분들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국말도 못하고 조금 한다고 해도 어눌하게 합니다. 그러니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한 저를 회장에 앉힌 것입니다. 한국말도 가르치고 자녀들 데려오라고 해서 모임도 하고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30~40대로 잘 넘어가게 해야 합니다. 후속세대 양성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봤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장직을 거절했습니다. 현재 공무원이고 돈도 없고 해서, 모든 조직에는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수석부회장: 무슨 파인 줄은 알고 계시는지요.

미주회장: 아버지께서 어려서부터 추밀공파이고 33세라고 말씀하셔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막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조금 일찍 와서 권행완 편집국장님한테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원류도를 보고 15개 파를 설명해 주시고, 시조부터 저까지 세계도(世系圖)를 찾아 정리해 주셨습니다. 세계도를 보니 시조부터 저까지 1000년의 역사가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동권씨 족보 성화보가 1476년에 제작한 한국 최초의 족보라는 것도 직접 펼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제공 권보 선조가 본인과 아들 다섯 명 그리고 사위 세 명까지 모두 봉군을 받아 구봉군 집안이었다는 것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과거급제자 중 전주이씨 왕족을 제외한 일반성씨 중에 가장 많은 359명이 합격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또한 열 정승보다 한 명의 대제학이 더 낫다는 말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할아버지에서 손자까지 대제학을 지낸 집안은 안동권씨가 최초라고 했습니다. 양촌 권근 선생과 그 아들 지재 권재, 그 손자 권람 선조 3대가 연이어 대제학을 지내 명문가 중의 명문가이며 전주이씨, 광산김씨, 연안이씨, 대구서씨 등 다섯 집안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교정 중인 <자랑스러운 안동권문의 발자취>라는 책도 보여주셨고 발간되면 보내주시기로 했습니다. 안동권씨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정말 대단한 선조를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동에서 제사는 지내고 있지요.

수석부회장: 해마다 봄 가을로 춘추향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권율장군 이치대첩제에 다녀왔습니다. 종친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도 종친회에 젊은 사람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직장 다니고 해서 아이들 돌봐야 하고 우선 시간이 없습니다. 이해해야죠. 미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미주회장: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엄청 올라서 30~40대는 집 사기 힘듭니다. 애들도 어리고, 남자 혼자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나 할까요. 제가 클 때만 해도 혼자 유치원 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다 엄마 아빠가 들고



대양그룹 회장실에서 대담하고 있는 권태형 미주종친회장, 권태정 수석부회장, 권혁홍 회장(왼쪽부터)



대종회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권태정 수석부회장(왼쪽) 권태형 미주 종친회장

시켜줘야 합니다. 사회가 변했습니다.

수석부회장: 아까 60~70대는 건물주도 있고 부동산을 구매한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부동산도 많이 올랐을 것 아닌가요. 그런 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자녀들 교육을 잘 시키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미주회장: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안동권씨 교육을 잘 시키도록 돈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세대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다음 대는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내일 당장 집에 널 돈도 없는데 히스토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000년의 안동권씨라고 했는데 먹고 살기 바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 재산 갖고 가지 못합니다. 안동권씨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장학금을 준다든지 베이비 캐어센터를 세워 도움을 준다든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안동권씨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본인들 부동산 몰려주듯이 하면 30~40대도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석부회장: 한국은 그래도 문중 재산도 있고 해서 은퇴하고 나이 들면 종친회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후배들이나 후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미주회장: 안동권씨 일원으로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사회적인 본인의 커리어 관리도 잘 하고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라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서 어르신들이 저를 회장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사회 일원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본인 일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석부회장: 미국에 가서도 연방공무원(IRS) 업무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고생 잘 극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연방공무원 잡(job) 놓지 말고 끝까지 성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 효도는 효도이고 결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LA에서 3년, 뉴욕에서 3년 살았는데 미국 경험으로 봐서 안정적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종친회에 두 번 나가 봤는데 이 역만리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태인은 열 집만 되면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안동권씨 종친회도 강한 자긍심 없으면 못합니다. 작든 크든 알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동권씨가 몇 분이냐 있는지 인원 파악도 하고 연락처를 작성해서 네트워크를 잘 정비하고 인재를 발굴해서 더불어 일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일연 회장님께 꼭 안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카톡이든 전화든 수시로 연락하도록 합니다.

정리 권행완 편집국장

제17회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제17회 대전 효문화뿌리축제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10월 3일 244개 문중이 펼치는 입장 퍼레이드에 종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자! 뿌리공원으로~

♣슬로건: 함께 내딛는 새로운 뿌리

♣장소: 뿌리공원 및 원도심 일원

♣문중 입장 퍼레이드

일시: 2026. 10. 3(토) 10:00~12:00

참여문중: 244개 문중

♣전체 일정: 2026. 10. 2.(금)~10. 4(일)

♣주최/주관: 대전광역시 중구/대전효문화뿌리축제추진위원회

♣안동권씨 조형물 견학

♣족보박물관 견학

장소: 뿌리공원 잔디광장 메인무대

점심식사 제공

安東權氏

안동권씨 대종회 권혁홍 회장·대전종친회장 권용기